

산업부, 美 트럼프 행정부 대비 반도체·조선업계 만나 영향 점검

반도체 간담회서 ‘관세 인상’ 도마 업계,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 우려 대미 투자·수출 추진 정부 지원 건의 조선산업, 새로운 개척분야 기대감 업계, 韓-美 조선협력 확대 환영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점검을 이어 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 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따른 우리 업계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자동차, 철강업계와도 만나 업종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줄곧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美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라며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 합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해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간 협력을 위해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홍문표(뒷줄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경기지역본부 찾아 올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aT

홍문표 “콩 안정적 보관환경 조성해야”

(aT 사장)

보관농산물 현황·시설 점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식량안보와 관련 “기후위기에 대응해 ‘오곡’의 하나인 콩의 재배 및 보관 환경을 지속가능·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전날 인천 소재 수입콩 정선업체 선광을 찾아 정선가공 및 포장 및 보관환경 등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필수식품인 콩의 안정적인 보관 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홍 사장은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aT평택비축기지를 찾아 보관농산물의 품질 및 시설 안전도 점검했다.

또 aT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

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일선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제26회 한국 4-H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촌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의 손에 달려 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상식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청소년 및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부,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성과 발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개최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해 온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지·보수와 주거

환경 개선(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 건축물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진행, 약 105억원을 투입해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코트라, 中 수출관리제도·법체계 가이드 제공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 보고서 발간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해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을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식품산업, 전폭적으로 지원”

푸드위크 2024 개막식

오는 23일까지 코엑스에서 행사 진행 31개국·1054개社, 4개 전시관 운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일 “정부는 우리 식품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식품산업이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 위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식품산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본의 ‘푸덱스’, 프랑스의 ‘시알’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행사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오늘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술력을 가진 K-푸드테크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새로운 수출 융합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식품 분야에 적용되는 푸드테크 기술은 식품 원료 생산과 가공에서부터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식품 프rinting 분야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 메인무대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식에서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받았다. /김대환 기자

까지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31개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며,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특히, 정책홍보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K-푸드로의 성장과정 등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 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푸드테크관의 경우 푸드테크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인력 부족, 기후변화, 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 창업,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

식도 함께 열렸다. 은탑산업 훈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가 받았다.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에 힘쓴 김형욱 북경매일유업유한공사 법인장과 국내 음료·주류 식품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이양수 롯데칠성음료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가 농업과 식품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K-푸드테크와 식품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